

언론 사람

10
2020
VOL.244



04 인터뷰 人+人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06 Newmedia of the World
자동팩트체크 기술과 기본기

08 세상사는 法
유튜브 뒷광고와 기사형 광고

12 이달의 시
현실, 그 너머를 꿈꾸고 사랑하는
인류의 영혼

- 04** 인터뷰 人+人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 06** Newmedia of the World
자동팩트체크 기술과 기본기
- 08** 세상사는 法
유튜브 뒷광고와 기사형 광고
- 10** 돋보기
한가위 보름달에서 배울 일

- 12** 이달의 시
현실, 그 너머를 꿈꾸고 사랑하는
인류의 영혼
- 14** 단어의 중력
막장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그녀는 오문희, 두원의 어무니, 우리의 어머니
'오! 문희'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Andrey Gorgots
<Wild Chrysanthemum>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자연에게 말합니다.
반갑다고.

자연이 자연에게 말합니다.
고맙다고.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다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 볼까요?



섬세한 시선, 따뜻한 눈길 여기자협회 정신입니다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진실과 거리가 먼 오보, 일방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차별 표현 등으로 넘쳐나는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우리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자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Q 한국여기자협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

A 1920년 한국 최초의 여자(이각경)가 탄생한 이후 우리 근대사에서 여기자는 문필가이자 지사, 계몽운동가, 여성 운동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선배 여기자들의 노력이 쌓여 한국여기자클럽이 1961년 탄생했고, 이를 모태로 성장한 게 현재의 한국여기자협회입니다. 80·90년대만 해도 각 회사에 여기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친목 성격도 있었지만, 최고의 언론인이 되기 위해 선배들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언론사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004년 한국여기자협회로 확대됐고 현재는 31개 회회사 1,350명의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자들의 자질 향상, 언론을 통한 우리 사회 양성 평등 실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출판·보도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눈에 크게 증가하면서 취재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A 기자 초년 시절에 언론계 독보적이던 선배 한 분이 “나는 편집국 불박이장 같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기자로서의 역량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지만 본인은 편집국 한 칸에서 남자 후배들의 승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였죠. 지금은 유리천장이 많이 깨진 편입니다. 2005년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이 나온 후, 각 언론사에서 많은 여성 국장·부장들이 활약하고 있죠. KBS 9시 뉴스 메인 앵커도 여성기자가 맡고 있고, 여성 정치 부장도 꽤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27개 언론

사의 여기자 보직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사급 임원은 전체 115명 중 4명(3.5%), 국·실·본부장은 202명 중 14명(6.9%), 부장·팀장 553명 중 81명(14.6%)이었어요. 여기자 수는 많아졌지만 20년, 30년 버텨낸 여기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언론인 단체가 토론회를 하면서 남성 중견 기자만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이른바 '매널' 현상도 여전하고요. 육아 휴직 문제 등 제도적으로 더 나아져야 할 부분도 많죠. 언론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도 데스크 이상 여기자들의 수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Q 2020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기사 중 서울 쪽방촌을 취재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섬세한 기사였는데요.

A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약자 편에 서지만, 여기자들이 사회 이슈에서 약자, 소수자 편에 좀 더 가까이 서서 취재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제가 쪽방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함이 전이되는 느낌도 받았는데, 수상작 심사 과정에서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고 참신하다. 이게 여기자들의 특징일 수 있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꼼꼼하고 깊이 있는 취재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언론인데, 그 역할에 충실한 거죠. 한국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전체 언론인들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자상 후보로 제출된 많은 기사들이 이런 매의 눈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사들이었어요.

Q 언론중재위원회도 2019년 시정권고기준을 개정해 차별적인 표현을 금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최근에는 여성비하 표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혐오 및 차별 표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성인지 감수성에서 벗어난 표현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자들이에요. 기자 이름이나 사진을 보고 인신공격성 댓글과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인격 침해,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공격을 반복해 받다 보면 취재하고 기사 작성할 때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요. 언론계, 학계, 시민 영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악성 댓글 차단 방안과 젠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요. 젠더 가이드라인의 경우 작년에 여기자협회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논의는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황인데요. 언론중재위원회도 혐오나 차별적 내용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계시니 함께 논의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Q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이 있으신가요?

A 내년이면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1961년 변혁의 시대에 태어난 한국여기자협회의 역사는 한국 사회의 진보, 양성평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자들이 쓴 기사 자체가 '운동적'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60주년을 맞아 여기자들의 역사와 한국사회변화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을 발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년 행사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여러 행사가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언론인 지망생을 위한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 등이 보류돼 많이 아쉽습니다.

Q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당시 시대 분위기도 있었지만, 졸업 후 기자직을 선택한 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뜻이 컸어요. 지금 언론인을 꿈꾸는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자직은 '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DNA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요. 언론인은 온 세상 이슈를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일은 고되도 늘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공동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에 자부심도 컸고요. 사실 그동안 사회도 변했고,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신뢰도 하락 등 여러 도전에 둘러싸여 있지만, 저는 언론인 지망생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란 우리 삶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라고요.

자동팩트체킹 기술과 기본기

자동팩트체킹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한 기대는 날로 증가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양에 비례한다. 인간 팩트체커의 힘만으로는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폭증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모두 검증할 수도, 그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어서다. 수용자 입장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부지불식간 그 것을 믿게 되고 재유통시키는 우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팩트체킹 기술은 있으면 좋은 단계를 넘어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단계로 진입하는 중이다.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tsitute)에 따르면¹⁾ 현재 자동팩트체킹 기술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팩트체킹 데이터베이스나 출처 기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입장 탐지(Stance Detection) 기술이 그것이다. 전자에 대해 짧게 소개하면, 이미 검증된 팩트체크 DB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검증한 팩트체크 기사들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저장하거나 확보한 뒤 이 방대한 DB와 새롭게 제기된 주장문을 대조하며 검증을 진행한다. 데이터 커먼스(Data Commons)라는 비영리 데이터 저장소²⁾가 팩트체크 DB의 저장 및 관리, 공유 역할을 맡고 있다.

Fact Check

팩트체크 DB가 풍성할수록 판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정확도는 높아진다. 물론 검증 속도도 빨라진다.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통계나 기타 근거 자료들도 동원된다. 팩트체크 DB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진술문을 판별하려면 추가적인 데이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듀크 대학의 스쿼시(Squash), 영국 풀팩트(Full Fact)의 자동팩트체크 기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DB 대조형 자동팩트체크는 사람의 판단이 생각보다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듀크대의 스쿼시만 하더라도 방송 등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팩트체크 DB로 판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가 등장하면 전문 팩트체커의 감수가 필수적이다. 정확성의 빈틈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기계에만 내맡기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완벽한 기술이 아닌 바에야 정확성을 생명으로 삼는 팩트체크에는 인간의 조정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반면, 입장 탐지 기술은 진술문과 기사의 쌍을 기계에 학습시켜서 의심스러운 진술문을 찾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주로 사전 학습된 언어모델(Language Model)을 활용한다. 쉽게 말해 자연어를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팩트체크 대상을 선정하고, 대조하고 판별해서 결과를 내놓는 형태다.

캐나다 워털루대가 발표한 논문³⁾에 따르면 입장 탐지형 자동팩트체크 기술은 문서 검색(Document Retrieval), 입장 탐지(Stance Detection), 평판 평가(Reputation Assessment), 진술 검증(Claim Verification)으로 구성이 된다. 학습 데이터는 저널리즘 전문 연구기관인 토우 센터(Tow Center)가 개발한 '이머전트(Emergent)'라는 루머 추적기⁴⁾에서 가져왔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들을 긁어모은 뒤, 시계열로 루머가 확산되는 흐름을 모은 일종의 사실 검증용 기사 꾸러미다.

두 부류의 자동팩트체크 기술 모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세트에 의

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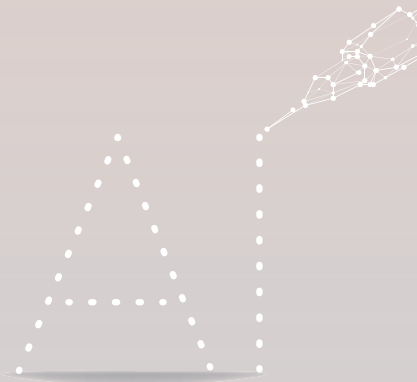
다. 듀크대의 스쿼시는 누적된 팩트체크 기사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면 구축하기 어려웠다. 워털루대의 자동팩트체크는 토우센터의 이머전트 프로젝트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시켰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기사와 진술문' 쌍 7만여 데이터 세트 중에 49,972개를 트레이닝 세트로, 25,413쌍은 테스트 세트로 활용해 개발한 것이다.

국내 언론사 중에 구글의 클레임리뷰(Claim Review)와 같은 구조화된 팩트체크 DB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언론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자동팩트체크 기술을 개발하려면 구조화된 팩트체크 기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SNU FactCheck센터⁵⁾가 보유한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아쉬운 점은 이 센터가 보유한 양도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언어모델 기반으로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한 자동팩트체크를 개발해야 한다면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팩트체크 툴 개발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팩트체크 기사 생산은 전적으로 언론사들의 몫이기에 정부가 관여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자동팩트체크 기술 연구가 한창이고 개발하는 곳도 여럿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탄력을 받으려면, 국내 팩트체커들이 그들 자신의 작업물을 기계가 해독할 수 있는 (Machine Readable) 형태로 구조화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그것을 공유화한 자원(커먼스)으로 개방해둘 때 훨씬 더 큰 역할을 발휘한다. 저널리즘도, 그것의 보조를 위한 기술도, 기본이 튼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0/automated-fact-checking-can-catch-claims-that-slip-past-human-checkers-here-are-the-two-ways-they-work/>

2) <http://www.datacommons.org/factcheck>

3) <https://uwaterloo.ca/news/news/new-tool-uses-ai-flag-fake-news-media-fact-checkers>

4) <http://www.emergent.info/>

5) <https://factcheck.snu.ac.kr/>



유튜브 뒷광고와 기사형 광고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를 하고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들에 과징금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 홍보를 의뢰하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게시물이 작성된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본 것이다. 최근에는 또 유튜브 뒷광고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 유튜버가 자기가 직접 구매한 후기인 것처럼 방송했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협찬인 것이 밝혀져 유튜버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0년 9월부터 세부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언서가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이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것이다.

위 심사지침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매체에 어떤 방법과 수준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령 유튜브의 경우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예로서, 제목을 'OO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OO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진' 내에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SNS상에서의 광고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개인 SNS를 통해 광고를 광고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면, 기사를 통해 광고를 광고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를 '기사형 광고'라고 한다)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 SNS보다 언론에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기자 이름을 달아 기사인 것처럼 포장하는 언론사 광고도 볼 수 있다.

관련 법안이나 관련 기구에서 기사형 광고를 불법으로 보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도 위 위반사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형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보다 기사처럼 보이는 게 광고 효과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한데, 처벌 조항이 없으니 언론사들이 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몇 년 전 이러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A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대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A는 인터넷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고 언론사에 이 사이트를 기사 형식으로 광고했다. 해당 기사에는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등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광고 전에는 구매 주문이 6,000만 원 정도였는데, 광고 게재 후에는 10억 원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법원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언론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40%인 약 4억 3,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법원은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 일반 독자가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신문사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사의 작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무소속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개인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었다면,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독자가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

한가위 보름달에서 배울 일

<팔월십오일야완월(八月十五日夜玩月)>

8월 15일 밤에 달을 구경하며

당(唐) 유우석(劉禹錫, 772-842)

天將今夜月, 천장금야월
하늘은 오늘 밤의 달로

一遍洗寰瀛. 일편세환영
한차례 온 세상을 씻어 내는구나.

暑退九霄淨, 서퇴구소정
더위가 물러가니 높은 하늘이 깨끗하고

秋澄萬景清. 추징만경청
가을이 맑아지니 모든 경치가 산뜻하다.

星辰讓光彩, 성신양광채
별들은 달에게 광채를 사양하고

風露發晶英. 풍로발정영
바람과 이슬에 영롱한 빛을 발산한다.

能變人間世, 능변인간세
인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儵然是玉京. 소연시옥경
자유로운 이 하늘나라로다.

장(將): 수단이나 방법을 표시하는 전치사

환영(寰瀛): 온 세상

구소(九霄):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정영(晶英): 영롱한 빛

소연(儵然): 자유롭게 얽매임이 없는 모습

옥경(玉京): 옥황상제가 사는 도성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둥근 보름달은 떠오른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춰 주는 보름달을 보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와 정서에 따라 원만함이나 풍성함, 그리움이나 외로움, 실망감이나 무상감 등 각양각색의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다.

호방함으로 이름난 이백도 밝은 달을 보다가 고향 생각에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진 <고요한 밤의 그리움(靜夜思)>이라는 시에서, “머리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가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한다.(舉頭望明月, 低頭思故鄉)”라고 읊었다. 천고의 명시라고 칭송되는 이 시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처량함을 읽을 수 있다.

국가의 안위에 노심초사하고 백성들의 질고에 가슴아파하던 두보도 달을 보고 그런 심경을 드러내었다.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을 보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은 <달밤(月夜)>이라는 시가 있다.

현실, 그 너머를 꿈꾸고 사랑하는 인류의 영혼

Job 뉴스

장정일

봄날,

나무벤치 위에 우두커니 앉아

〈Job 뉴스〉를 본다.

왜 푸른하늘 흰구름을 보며 휘파람 부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호수의 비단잉어에게 도시락을 덜어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소풍온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을 듣고
놀라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비둘기떼의 종종걸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뭇잎 사이로 저머드는 햇빛에 눈이
상하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왜 나무벤치에 길게 다리 뻗고 누워 수염을
기르는 것은 Job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40억 인류의 Job이 될 수는
없을까?

- 〈서울에서 보낸 3주일〉 (청하, 1988)에서

장정일(1962-)은 우리 시단의 누구보다도 자유인의 성품을 강하게 지닌 시인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세상의 평범한 규범들을 의심하고, 기존의 익숙한 관념들에 균열을 내며 자유의 새로운 지대를 열어 나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만년 '문청(文靑)'인 시인입니다.

이달에 함께 읽는 그의 시 <Job 뉴스>는 이런 자유인이자 만년 '문청'의 시인이 쓴 작품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시되고 모든 사람들이 적응하며 수용하고 있는 이른바 'Job'의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Job'이란 우리를 도구화하고 고단하게 하며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난감함 때문입니다.

그는 조숙한 어린이나 엉뚱한 학생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푸른 하늘 흰구름을 보며 휘파람 부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까요, '호수의 비단잉어에게 도시락을 덜어주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까요, '소풍 온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을 듣고 놀라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까요, '비둘기떼의 종종걸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까요, '나뭇잎 사이로 저머드는 햇빛에 눈이 상하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까요, '나무벤치에 길게 다리 뻗고 누워 수염을 기르는 것'은 Job이 될 수 없을가요라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Job이 될 수 없지요. 누구도 이들을 돈을 지불하며 사 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들도 언젠가는 Job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시켜 그들이 지갑을 열고 이들을 소비하거나 구매하게 하면 될 터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가정과 사유는 너무 유치합니다. 결국 Job이라는 것을 욕망의 충족 문제로 수렴시키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 시를 다른 차원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실로 'Job'이란 목숨 가진 생명으로서 인간들의 원초적인 과제의 한 양태입니다. 생명의 핵심 욕망이자 조건은 목숨을 유지하는 생존에 있고 그 생존을 위해서 생명체들은 밥과 집과 옷으로 상징되는 현실적 생존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나긴 시간을 두고 흘러왔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은 이 생존욕구에 기반하여 현실적 생존도구를 마련하는

데 바쳐져 왔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이 지구별의 우리 현생 인류들에겐 이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빵 너머’의 자유와 자율과 자족과 무상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자율과 자족과 무상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데서 인간의 영혼과 삶은 비약합니다. 그러면서 가을날의 순수한 허공과도 같은 숨길을 마련합니다. 마치 흥분되었던 자율신경이 제 자리를 찾아가 제 리듬으로 흐르며 작동할 수 있게 하듯, 긴장된 심신이 명상으로 정화되고 고요해지게 하듯, 그렇게 우리를 일차적 욕망과 도구성의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분명 장정일 시인이 Job이 될 수 없겠느냐고 물으며 열거한 목록들은

‘지금, 이곳’에서 Job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생존욕구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들을 흔쾌히 사 갈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사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 같은 도구가 모든 일차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해 주는 날이 온다면, 장정일 시인이 열거한 목록들은 그야말로 최선의 직업이자 인생사로 환영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 이 가을 장정일 시인이 열거하는 목록들을 틔는 대로 삶 속에 품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가을이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해질 것입니다.



막 장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미국의 플로리다와 디즈니랜드, 뉴질랜드의 남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과 테이블 산, 인도의 황금사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호주의 시드니, 미국의 뉴욕, 인도의 타지마할...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 50>의 목록을, 너는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짚어본다.

‘죽기 전에’라는 과격한 수식어가 한때 유행을 탔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그 말이 질색이다.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죽기 전에 가야할 곳,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거기에 ‘꼭’이라는 부사까지 달라붙어 마음에 초조한 짐을 지우는 행태라니. 살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나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봐야 한다는, 읽어야 한다는, 가야 한다는 남들의 강요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런 날이 왔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흘러넘치고, (그럴 리는 더욱 없겠지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도 흘러넘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밤을 새워도 거뜬한 체력까지 흘러넘쳐도 떠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의 목록은, '어쩌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곳들'의 목록이 되었다. 이제 너는 쓸쓸하고도 기꺼운 마음으로 네가 이르지 못한 지명들을 마음에 담는다.

십일 년 전 여름, 너는 베니스의 호텔에서 홀로 눈을 떴다. 베니스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 50>에 올라 있다는 걸 알기 전이었다. 창을 열자 따뜻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토마토소스와 치즈의 냄새가 풍겨왔다. 너는 어리둥절한 채로, 네가 짐작할 수 없었던 어떤 운명에 이끌려 그곳에 이른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시작은 한 장의 티켓이었다. 베니스의 오래된 저택에서 열리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서른 명의 관객만 입장할 수 있었다. 홀린 듯 티켓을 예매한 후에, 후회할 틈도 없이 너는 베니스행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예약했다. 갑자기 여정이 잡히고 경황없는 날들을 보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베니스의 아침이었다. 드라마틱한 도시와 어울리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너는 썩 마음에 들었다.

호텔은 작지만 청결했고, 아침마다 이층에 있는 테라스에 식사가 차려졌다. 햇살은 갓 구운 빵처럼 따뜻했고 바람은 막 끓여낸 커피처럼 향긋했다. 가난한 여행길에 유일하게 허락된 사치였다. 그 사치를 에너지 삼아, 너는 베니스의 골목을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 모퉁이 하나만 돌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너에게 지도는 무용지물이었다.

수십, 수백 번 길을 잃어버리는 동안,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낡은 샌들의 끈이 떨어졌다. 어디를 가도 여행자가 흘러넘쳤고, 그들 모두 가족이나 연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딱히 불친절하게 구는 이는 없었으나, 네게 다정한 사람도 없었다.

어느 저녁, 너는 산 마르코 광장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네 앞에 놓인 에스프레소 한 잔은 점심과 저녁식사를 포기한 대가였다. 옆 테이블에는 열 명쯤 되는 대가족이 모여 생일파티를 열고 있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노부인이 케이크의 촛불을 켜다. 카페의 밴드가 생일축하곡을 연주하고,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어린 아이들이 노부인의 뺨에 입을 맞추자, 그이는 선글라스를 벗고 눈가를 훔쳤다. 기묘하게도, 너는 그 눈물의 맛을 느꼈다. 행복의 맛있고 순간의 맛있었다. 다시 오지 않을 날의 맛있고, 영원히 기쁨으로 또한 슬픔으로 기억될 맛있었다.

'막장'은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깡도의 막다른 곳' 즉 광산의 끝부분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끝장'으로 변질되었다. 목숨을 건 노동의 현장이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로 바뀐 것이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막장에 다다른다는 것을 상기하면, 함부로 쓸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찾을 길도 잃어버릴 길도 없는 곳, 희망의 빛이 가물가물 희미해지는 그곳에서, 산 마르코 광장의 어느 저녁을 떠올리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네 허끝을 감도는 순간의 맛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한다. 낯선 이의 길고 고난한 삶이 너에게로 흘러들어오던 그때, 세계는 아름다웠으나 너는 외로웠다. 너는 외로웠으나 세계는 아름다웠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너는 그 하나의 풍경으로 베니스를 기억했다. 물길 위로 고요한 노을이 내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빛나고, 여행자들의 슈트케이스가 돌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로 거리는 가득 찼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었다.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길을 잃고, 끼니를 에스프레소와 바꾸기도 하다가, 하나의 세계가 끝나는 곳에 이를 것이다. 누군가 꼭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갈 수 없었던 곳들을 잔뜩 품은 채.

그해 여름, 너의 낡은 슈트케이스도 베니스의 골목 위를 달그락달그락 굴러가고 있었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런 날이 있었다. 삶의 막장까지 지니고 가고 싶은 한순간이 있었다. 그 기억으로 또 하루를 견딘다.

사진: 황경신

베니스 이탈리아



그녀는 오문희, 두원의 어무니,
우리의 어머니

‘오! 문희’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들이 있다. 운이 없었던 영화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꺼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Tenet)’조차도 개봉 첫 주에 관객 수 90만 명을 밀도는 수모를 겪었다. 전작들의 흥행 속도나 영화의 규모, 만듦새를 고려할 때 양자물리학에 관한 내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 영화중에서는 9월 2일 개봉한 ‘오! 문희’(감독 정세교)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오! 문희’는 주인공 ‘오문희’(나문희)의 이름을 딴 제목이고, 오문희는 본래 ‘어머니’, ‘오무니’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착안한 것이다. 제목부터 보편적 어머니를 표상하고 있기에 국민 어머니 이미지가 강한 나문희 씨는 오문희에 더할 나위 없는



캐스팅이다.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문희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아들, 손녀, 조카, 반려견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어 외롭지 않다. 본래 몸도 건강하고 씩씩한 성격의 문희는 정신이 멀쩡할 때면 대장부처럼 마을을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병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수의 치매 환자들처럼 움츠러들어 있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당당한 것이 문희의 매력이다. 그러나 머릿속이 꼬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사고를 친다. 영화 초반에 냉장고의 코드를 뽑아놓고, 잠든 손녀의 머리를 엉망으로 잘라 놓는 것처럼.

치매에 걸린 어머니,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는 아들, 소담한 시골 마을 등 인물이나 배경에서 관객들은 대개 따뜻한 코미

디나 신파성 가족 멜로드라마를 기대하겠지만 ‘오! 문희’는 거기에 의외의 장르를 하나 더 얹어 놓는다. 손녀 ‘보미’(이진주)가 밤늦게 오문희를 따라 나갔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오문희가 이 뺑소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것이다. 애지중지하던 딸이 혼수상태가 되자 분노에 찬 ‘두원’(이희준)은 못 미더운 경찰을 대신해 범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오문희에게서 단서를 얻으려 한다. 코미디와 멜로드라마를 오가는 데다 범죄, 수사물의 성격까지 가미되면서 ‘오! 문희’는 관객들의 기대와 다소 어긋나게 됐지만 그 생소함은 곧 이 영화의 미덕이기도 하다.

범죄 수사 과정이 큰 줄기를 차지하다 보니 ‘오! 문희’는 웃기기 위해 과도하게 유치해지거나 울리기 위해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대신, 두원과 문희가 맞닥뜨린 현실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를 부여한다. 과학 수사가 보편화된 시대인데도 공권력의 도움 없이 오로지 발품과 인내심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고단한 과정 속에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후회했다 다시 의지하기를 반복하는 두원의 심정이 전달되는 것이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어느 날 아침, 문희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두원은 눈물을 글썽인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정말 모르겠어.” 신파를 피하려 부러 짧게 연출되었지만, 이 신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장성해 자녀가 있는 이에게도 엄마는 늘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비록 정신이 온전치 않더라도 말이다.

‘오! 문희’는 또한, 이전까지의 영화들이 치매라는 병을 소비해 오던 방식과 차별점을 보여준다. 치매라는 병을 혼자 두면 위험한 상태, 치매 환자를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현실을 뒤집어 문희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문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문희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사실상 사고 이후 문희가 내뱉는 단어 하나 하나는 사건의 크고 작은 실마리가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단어들을 무시하거나 오인한다. 문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내리사랑이 느껴져 뭉클해질 수밖에 없다. 손녀를 지켜주지 못

했다는 죄책감, 병마에 대한 절망감을 뒤로 하고 아들을 따라다니며 뒤죽박죽이 된 머릿속을 몇 번이나 헤집어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원은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딸을 보며 어릴 때 피를 철철 흘리는 자신을 업고 달렸던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까.

한편, ‘오! 문희’보다 약 열흘 앞서 개봉한 ‘69세’(감독 임선애)는 치료 도중 2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69세 여성 ‘효정’(예수정)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효정의 고발을 목살하거나 효정을 치매 환자로 매도해 버린다. 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노년기 여성을 앞세운 작품들이 이전보다 빈번히 제작되는 것은 100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노인의 인권과 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희나 효정을 향한 현재의 시선과 태도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 청년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가을밤과 함께 고민도 깊어가게 만드는 작품이다.



아무도 못 잡으면, 우리가 직접 잡는다!



위원회 뉴스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선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새로 선출된 위원 임기는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이다.

구분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운영위원회 (9명)	서울제7중재부	이석형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
	경기중재부	최홍운	(전)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사대우
	서울제3중재부	김선종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서울제6중재부	정도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이노신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강원중재부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전북중재부	황선철	황선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남중재부	조정현	법무법인 창해 대표변호사
	제주중재부	고영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
시정권고 소위원회 (7명)	서울제7중재부	이석형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
	서울제7중재부	박태경	(전)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서울제1중재부	신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2중재부	전진우	(전)동아일보 논설실장, 대기자
	서울제4중재부	김지영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제5중재부	박종권	(전)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울제8중재부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년 제2차 언론인 전문연수 비대면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9월 16일 제2차 언론인 전문연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윤리 및 인격권 침해 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위원회 조정사례 및 시정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언론분쟁 예방요령을 쉽게 풀어낸 강의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9월 29일 계간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56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의 대주제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구글 관련 주요 이슈 점검’으로 장철준 단국대 법과 대학 교수의 「구글-유튜브의 불법정보 유통과 삭제 문제」 등의 기고가 수록되었다.

위원회 채용형 인턴 임용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9월 7일자로 전산경력직 채용형 인턴(4급 예정) 직원 1명을 신규 임용했다.

근무부서	성명	임용일자
운영본부 총무팀	손호진	2020. 9. 7.

위원 동정

황인석 위원, 대통령 표창 수여

황인석 위원(서울제1중재부, 경기대 교수)은 9월 23일 <제47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황 위원은 언론인과 교수로서 기사, 연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민규 위원, <2020 세계기자대회> 발제

이민규 위원(서울제1중재부,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9월 14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기자대회>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미래'에 대해 발제했다.

윤용근 위원,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발제

윤용근 위원(서울제5중재부,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은 9월 3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해외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제했다.

황선철 위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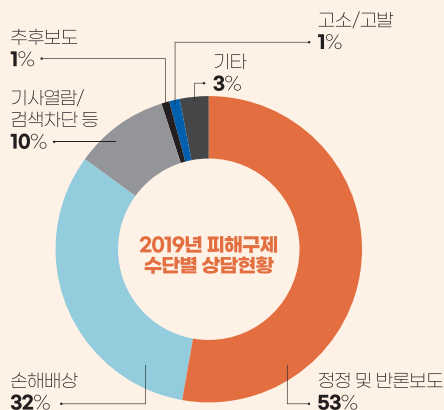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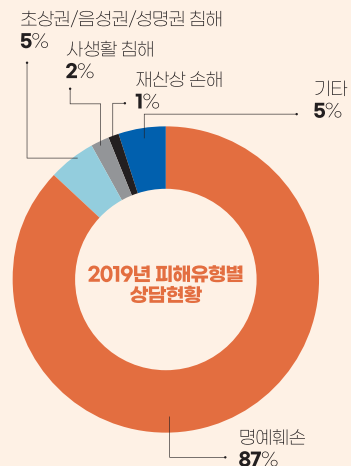
황선철 위원(전북중재부, 황선철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9월 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전주 교육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위원은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주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통계로 보는 언론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3,292건, 2020년 8월까지 2,174건의 언론피해상담을 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의없이 얼굴이 공개된 경우 등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 위원회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위원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선 피해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는 초상권이나 음성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구제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정정 및 반론보도로,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높았고,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는 기사를 독자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사 열람·검색 차단' 등도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최대한 피해를 구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언론매체가 아닌 SNS·블로그 등의 게시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도일로부터 6개월 및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인 경우와 같이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제출 마감

연구논문 제출 마감

2020. 11. 8.(일) 24:00까지

응모 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논문 접수

이메일 접수

journal@pac.or.kr

-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